

사설

신도교육 미래불교 사활결려

어떤 종교가 건강한 모습으로 있는가는 결국 그 종교의 성직자와 신도들의 수준에 달려 있다. 조계종단이 많은 모순과 갈등을 드러내면서 현대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도 결국은 스님들과 재가 신도들의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스님들과 재가자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조계종단의 종교적 수준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현실로 본다면 스님들과 재가자들이 부정적인 영향관계의 고리를 형성하고, 계속 질적인 저하를 부채질하는 악순환의 영향관계를 주고 받는 측면이 많다는 것이 조계종단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조계종 포교원이 개편된 신도법에 의하여 내년 3월부터 신도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은 그 동안 스님들의 문제에 급급해 있던 조계종이 드디어 종단의 저변을 이루는 신도들의 질적 향상에 나선 것으로, 조계종단이 올바르게 서는데 초석이 될 만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입문·기본·전문·지도자·재교육의 과정을 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며, 교재·발간의 준비를 서두르는 모습에서 우리는 교육받은 수준 높은 신도들에 의해 밑받침되는 밝은 조계종의

미래를 기대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보완되어 조계종 신도교육의 확고한 틀을 정립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하여는 종단 중심의 제도 확립과 기본 자료 지원에 의하여 각 사찰별로 그 특성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획일적인 의무화보다는 일선 사찰의 스님들이 신도 교육이아말로 미래 불교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인식을 바로 하고, 각 사찰의 특성에 맞는 교육체계를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 신도들이 저변을 이루게 하는 신도 교육과 맞물려, 그 개인 신도들이 각각의 수준과 점진성에 따라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단의 체계를 정립하는 것도 또한 시급히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교육받은 신도를 거북해 하는 일부 스님들의 의식이 바뀌고, 또 신도 조직을 출가자의 틀리리리만 삼으려는 종단의 관행이 고쳐져야 신도교육이 올바르게 된다.

교육받은 신도가 제 몫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신도교육이아말로 미래 불교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 스님들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선도백과' 종교편향 다시없게

국방부 군종실이 펴낸 <사고예방을 위한 선도 및 상담 백과>라는 책자가 개신교 종교편향을 담고 있어 물의를 빚었다. 조계종과 종교편향대책위의 항의를 받아들여 국방부가 문제의 책자를 전량 수거해 폐기 처분하고, 다시 제작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우리는 이번의 해프닝 같은 사건을 보며 군내 종교편향이 근절될 날이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자괴감을 감출 수 없다. 먼저 10명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 모두가 군목사라는 사실과 군목사로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군종실의 해명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 군내 종교정책을 입안하는 군종실은 이에 대해 상담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의 군종장교를 편집위원으로 선정하기로 했다는 원칙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상담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담자와의 친밀감이다. 군법사와 군목사, 군신부는 매일같이 장병들을 만나 그들의 회로애락을 듣고, 그들의 어깨를 다독인다. 군법사가 됐건, 군목사가 됐건 그들은 석사 학위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종교시간을 배당하고 정신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것 아닌가.

실사, 석사학위 이상의 사람이 꼭 필요하더라도 편집위원 전원을 개신교 목사로 구성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군내에는 개신교 장병만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상담은 특정 종교를 은근히 강조하려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군종실 스스로 종교편향에 앞장섰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군종실 책임자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

불교를 대표해 국방부에 파견된 군법사와 군종장교에게도 책임이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일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했고, 불교를 대표하는 소임을 다 하지 못했다. 그동안 몇 차례 군내에서 종교편향 사태가 발생했을 때마다 군법사들이 사건을 은폐 또는 축소하려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에도 책임을 통감하기보다는 군종실 업무의 특성상 책을 발간한다는 사실만 알았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선 법당에는 인력이 모자라는데도 영관급 법사를 군종실에 파견하는 것은 무엇인가. 불교의 뜻을 군종정책에 반영하고, 종교편향과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의미도 있다. 해당 법사의 참회를 촉구한다.

'정보 조사비' 국회상정

문화재청 5억 책정...상임위 심의 "비지정문화재 제도적 보호 기대"

문화재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신설된 '불교문화재 일제 조사비' 5억원에 대한 국회 통과 여부를 놓고 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조사는 국가의 차원에서 불교문화재의 목록을 조사할 목적으로 책정된 예산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조사를 토대로 문화재 제도법의 표적이 되고 있는 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 정부의 소홀한 문화 정책에 대한 비난이 적잖다.

국회에서 심의중인 예결산 자료에 따르면 '불교문화재 일제

조사비'와 같이 문화재청이 2001년 신규 사업으로 책정한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심사 중인 '조사비'는 국회 상임위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다시 상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 관계자들은 "비지정문화재 현황 조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며 "민약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면 예비비에서라도 총당할 수 있는 관계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동안 문화재 관계자들은 "비지정문화재와 지정문화재의 차이를 조사를 하고 양한 것의 차이"라며 "도난을 방지하고 바른 문화재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현황부터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해 왔다.

'불교문화재 일제 조사'란 문화재청이 2001년부터 계획하고 있는 연차사업으로, 1개 도마다 5억 원을 책정해, 전국에 산재해 있는 지정·비지정 불교문화재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또한 문화재청은 이 과정에서 비지정문화재의 학술적 가치를 조명하고, 지정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이미 11월 27일 대전 정부 제2청사에서 열린 문화재청 감사에서도 촉구됐다. 이날 한나라당 남경필, 박승웅 의원은 "도난이 발생하는 이 과정에서 비지정문화재의 학술적 가치를 조명하고, 지정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예산안 처리 당초 15일로 예정되었으나, 국회에서 예산안 조정 소를 가동하지 못해, 예산안 처리는 빨라야 18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opia.com)



남북불교 베이징 회동. 조계종, 진각종 대표단은 13.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 대표단을 만나 남북불교교류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상임집행위원장 명진스님은 "활발한 교류를 통해 통일사업에 기여하는 데 남북불교대표들이 의결한 결의를 같이 했다"고 말했다. 왼쪽 네번째부터 사회부장 양산스님, 명진스님, 조불련 심상진 서기장. 정성운 기자 (사진 제공=민족공동체추진본부)

1면 '윤리현장' 서 이어짐

장 삼초 대정사와 최창규 성균관장, 예장연합총회장 김광명 목사, 민족종교협의회 회장원 회장이 참석했다.

한국종교협의회는 올 1월 정기총회에서 윤리현장을 제정하기로 결의하고 10개 종교에서 추천한 기초위원회 구성, 3차례의 회의를 통해 초안을 작성했다. 이후 이달 초 각 종교 대표의 감수를 받아 이날 윤리현장을 선포했다. 종교협의회는 실천강령을 작성하기 위해 3차례 걸쳐 생명윤리·지구윤리·종교윤리에 관한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10개 종교대표들이 선포한 종교인 윤리현장의 실천강령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종교인은 자기가 배우고 경험하고 깨달은 진리를 믿고 말하고 가르치는데 그치지 않고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여 진실과 겸손과 봉사, 삶의 숭고성을 실천한다.

우리는 종교인은 종교에 의해 야기된 어떤 분쟁과 갈등도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교간의 대화를 통해 화해와 협력과 일치를 실천한다.

(swjung@buddhopia.com)

조계종 "국방부 종교편향 자료 책임추궁"

군종실 법사등 2명 소환

종교편향적 내용을 담고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선도 및 상담 백과>가 만들어진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조계종 포교원이 군종실장 김말환, 국방부 군종실장 김규대 선임법사를 소환한다.

조계종 포교원은 지난 12월 국방부장관에게 공식 공문을 보내 문제의 책자가 만들어진 자료를 요청하고, 18일까지 김말환·김규대 법사가 포교원을 방문해 경과를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포교원이 국방부에 이같이 요구한 것은 지난 9일 제출된 두 법

사의 경위서 내용이 부실하고, 이번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군법사가 군내 종교편향에 대해 불교계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국방부를 두둔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번 기회에 군법사들의 보신주의와 입문태만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본지 298호 2면 기사 참조>

군종실장 김말환 법사는 경위서에서 99년 11월 종합행정학교 군종학 처장으로 재직시 책을 편찬할 것을 건의했지만 99년 12월 초 1군사령부 군종참모로 전출되

어 편집위원 선정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문제의 책자가 배포되기 전 목차와 편집자, 감수자만 살펴보고 세밀한 내용을 검토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 김규대 법사도 책이 발간된다는 사실은 알았으나 편집위원 위촉에 대해서는 일체의 요청도 받지 않았고 인쇄직전 편집안료 사실을 통보받고 목차와 구성 부분만 열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교원과 종교편향대책위는 국방부에 파견된 군법사가 책자의 기획부터 감수과정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어도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현대만평 박구원

관문을 통과해야

조계종 역경·학술상 제정

불학총서 지속발간

조계종 역경위원회(위원장 장산스님)는 13일 제3기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 1회 회의의 소집, 역경·학술상 제정, 불학총서 지속발간, 역경 및 학술지원에 대한 지급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녹색소비자연대 등 13개 시민·환경단체는 참여연대의 탈퇴와 관계없이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 등 국립공원 정책을 정부에 제시하기로 했다.

정성운 기자

중앙승가대학교 2001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본교는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법 제67조에 의해 종단에서 운영하는 종합대학으로서 대한불교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입니다.

정시모집 "다"군 신입학생 모집요강

모집학과 및 정원

계열	학과	일반전형 (60%)	특별전형		비고
			정원내 40% (대교과출신)	정원외 (재외국민등)	
인문	불교학과	18	12	1	
	역경학과	18	12		
사회	포교사회학과	18	12	1	
	사회복지학과	18	12		
합계		72명	48명	2명	122명

※ 특목모집 합격자 및 정시모집 동일학과 타 대학 지원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복수전공이 가능하여 타학과를 같이 전공하실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및 전형방법

■ 특별전형
· 지원자격: 조계종 승려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01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조계종 교육원에서 인정하는 강원 대교과(4년)졸업(예정)자
· 전형방법: 입학정원의 40%내에서 서류전형 및 면접(인성)고사로만 선발함

■ 일반전형
· 지원자격: 조계종 승려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01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위의 학력을 갖춘 타종단의 승려로서 해당 소속 총무원장의 추천을 받는다.

○ 전형방법: 입학정원의 60%내에서 다음의 방법으로 선발함

고교내신성적	필기(교리)고사	면접(인성)고사	합계
40% (400점)	40% (400점)	20% (200점)	100% (1,000점)

원서 교부 및 접수

■ 장 소: 본교 교학처
■ 교부기간: 2000. 12. 11. ~ 12. 30.
■ 접수기간: 2000. 12. 27. ~ 12. 30.

■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 출석 및 중요과목 성적 기록 및 작성교직원 서명 또는 날인후 테이프 부착
(2) 고교졸업(예정)증명서 1부
- 대입접정고사 합격자: 합격증 사본과 성적증명서 각 1부
(3) 고교생활 기록부 사본 1부: (2001년 졸업예정자 포함)
(4) 승적증명서 1부
- 타종단 승려는 해당 총무원에서 발급
(5) 강원 대교과 졸업(예정)증명서 1부: 특별전형 지원자에 한함
※ 특별전형 지원자는 조계종 교육원에서 강원졸업증명서 확인서 첨부
(6) 주민등록 등본 1부
(7) 사진(오조가사 수한 반영함판 3×4cm) 5매제출 (3매 원서부착, 2매별도)

■ 입학원서대 및 전형료
(1) 원서대 및 입시요강: 3,000원
(2) 전형료: 60,000원

■ 전형일정
· 예비소집(특별 일반전형): 2001. 1. 17. (수) 09:00 ~ 09:40
· 필기(교리)고사(일반전형): 2001. 1. 17. (수) 10:00 ~ 11:10
· 면접 및 인성검사: 2001. 1. 17. (수) 12:30
※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비소집, 시험, 면접을 하루에 마칩니다.

편입생 모집요강

■ 모집학과 및 인원

계열구분	학년	전산코드	학과	모집인원
인문·사회 계열	3학년 (일반편입)	1 3	불교학과	
		2 3	역경학과	
		3 3	포교사회학과	
		4 3	사회복지학과	
3학년 (학사편입)	3학년 (학사편입)	1 4	불교학과	
		2 4	역경학과	
		3 4	포교사회학과	
		4 4	사회복지학과	

※ 2학년 편입은 1999학년도 2학기부터 모집하지 않습니다.
※ 각 학과의 모집인원은 여석 판단후 발표

■ 지원자격
○ 일반편입: 대한불교 조계종 승남 만2년 이상 승려로서 대학 2년이상 수료자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학사편입: 학사학위 소지 및 예정자로서 조계종 승남 만2년 이상인자
※ 타종단 승려도 위와 동등한 자격 및 학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편입 지원가능

■ 전형방법 및 일정
- 신학적 전형일정과 같으며 편입생은 특별전형이 없음
■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승가대학교 교학처(입시 담당자)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156
(02)925-5507 (내선 202~5)